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117-123,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117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대학PR 연구: 교수의 수업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대학-학생 관계성과 대학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A Study on the University PR in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ffects of Professor's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and university attitude

Myung-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대학 PR의 관점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으로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선정하였고, 결과변인으로는 대학태도를 선정하였다.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대학PR의 관점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수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학 PR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교수 역량, 교수 커뮤니케이션,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태도, 대학P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was analyzed in the university PR perspectives. The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rofessors were selected as antecedent variables of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and attitudes toward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outcome variables.
In the results, the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rofessor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USR. In addition, the USR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universit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SR should be considered in university PR perspectives. It also shows that the role of professors is not limited to educational activity and research, but important in the long-term university PR.

Key Words : Teaching Compet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University Attitude, University PR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20.
*Corresponding Author : Myung-Il Choi(jhmi0410@empas.com)
Received July 22, 2020 Revised August 31,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입학정원이 입학가능학생 수보다 많다. 2020년에는 17,842명, 2024년에는 123,748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 정원과 비교해서 약 24%가 부족한 실정이다[1]. 이로 인해 국내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대학은 폐교가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타대학 편입, 자퇴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을 교육 소비자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PP적 관점에서의 주요 공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2, 3].

PR의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과 공중 사이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있다. 이 때문에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OPR)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며, 효과 측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긍정적인 조직-공중관계성은 조직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5], 지지행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학을 하나의 조직(Organization)으로 보고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만족도[2], 학업성취[3], 학생 충원율[7]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소속 대학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런데 이들 연구의 한계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학생 관계성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가정하고 대학 만족도, 대학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7].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이면서 지식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9].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수들에게 학생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친밀감 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대학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수서비스, 비교수서비스, 물리적 교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교수서비스만이 학생들의 지각된 품질, 인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형성에 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학생 관계성(헌신, 신뢰, 상호통제성, 만족, 공동체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1]. 특히 교수의 전문성, 사적·공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학생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12]. 이러한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학-학생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대학차원과 교수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통계분석에서는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에 교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2].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변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과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 형성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수 역할을 수업 역량(teaching competence)과 커뮤니케이션 역량(communication competence)으로 구분하고,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5, 8], 이 연구에서도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교수의 수업 역량은 대학-학생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대학-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2020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 경기, 충청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코로나 19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1학년의 경우 대학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없다.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300부를 수집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2명의 응답 결과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88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1명(24.7%), 여성 217명(7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20세~26세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2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174명(60.4%), 3학년 68명(23.6%), 4학년 46명(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한 구성개념인 교수 역량, 교수 커뮤니케이션,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태도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2.2.1 수업 역량

교수의 수업 역량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10].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 교수의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대학 교수는 수준 높은 강의 내용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 교수는 내가 최신 지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 대학 교수는 내가 각종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등이다.

2.2.2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우리 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학과 교수와 면담할 수 있다', '우리 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등이다.

2.2.3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학생 관계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개 차원(헌신, 상호통제, 신뢰, 만족)에 대해 1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 헌신은 '나는 우리 학교와의 유대적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학교의 일이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나와 장기적으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등 3문항을 이용하였다. 상호통제는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와 나는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학교와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느정도 내 의견이 반영됨을 느낀다' 등 3문항을 이용하였다. 신뢰는 '우리 학교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 학교는 건전한 원칙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다', '우리 학교는 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 준다' 등 3문항을 이용하였다. 만족은 '나는 우리 학교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나는 우리 학교와의 상호작용에 만족한다' 등 2문항을 이용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은 연구결과의 간명성 확보를 위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_{(38)}$ = 90.66, p<.01, SRMR = .032, CFI = .99, RMSEA = .05, NNFI = .99).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CFA, NNFI 등은 .90이상, SRMR, RMSEA 등은 .10 이하인 경우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차원별(헌신, 상호통제, 신뢰, 만족)로 하위 측정문항의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2.2.4 대학태도

대학태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을 이용하였다[8].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 호의적이다', '나는 우리 대학이 좋다',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 긍정적이다' 등이다.

3. 분석 결과

3.1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모형(수업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태도)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ISREL 8.53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ML(Maximum -likelihood estimates)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성,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_{(84)}$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4, RMSEA = .08).

한편,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s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각 구성개념별로 하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말한다[14].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적재값이 .70~.93의 범위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모든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값(squared correlation)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15].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시한 모형적합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chi^2_{(86)}$ = 258.81, p<.01, CFI = .98, NNFI = .97, SRMR = .05, RMSEA = .08).

다중상관계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변동량의 45%, 대학태도 변동량의 70%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참조).

Table 1. Result of measurement model

Construct	Measurement Items	Mean	S.D	Factor loading[1)]	t-value	Composite Reliability
Teaching Competence	1-1	3.80	0.85	0.78		.91
	1-2	3.98	0.81	0.82	12.87	
	1-3	3.67	0.96	0.8	16.92	
	1-4	3.84	0.87	0.8	15.95	
Communication Competence	2-1	3.89	0.79	0.84		.91
	2-2	3.71	0.83	0.7	12.87	
	2-3	3.76	0.94	0.85	16.92	
	2-4	3.85	0.85	0.82	15.95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2)]	3-1	3.27	0.86	0.8		.93
	3-2	2.88	0.88	0.8	15.1	
	3-3	3.23	0.80	0.87	16.91	
	3-4	3.19	0.89	0.89	17.41	
University Attitude	4-1	3.42	0.91	0.87		.94
	4-2	3.29	0.92	0.91	22.38	
	4-3	3.39	0.94	0.93	23.03	

1. Standard coefficient
2. Summed average of measurement items by 4 dimensions (commitment, mutual control, trust, satisfaction)
Model fit index: $\chi^2_{(84)}$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 RMSEA = .08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AVE	The squared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			
		①	②	③	④
Teaching Competence(①)	.71	1			
Communication Competence(②)	.71	0.55	1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③)	.77	0.36	0.37	1	
University Attitude(④)	.84	0.30	0.36	.6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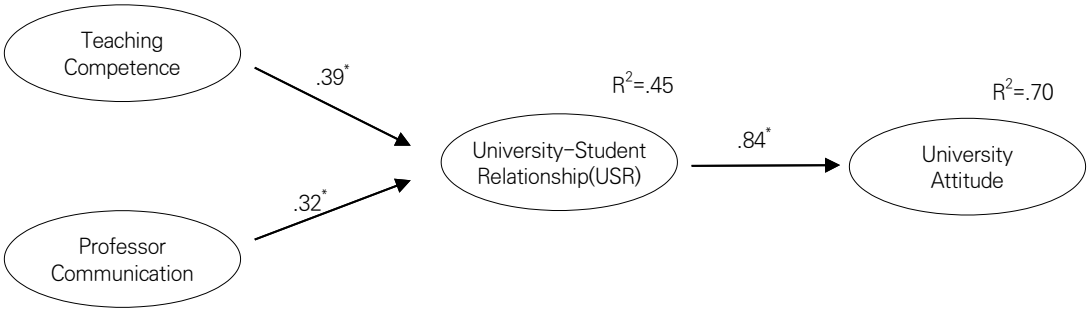

Fig. 1. Result of research model
1. $x^2_{(86)}$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 RMSEA = .08
2. *p 〈.01.
3. The coefficients for all paths are standardized values

3.3 가설검정 결과

가설 1에서는 교수 역량이 높을수록 대학-학생 관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γ=.39, t=4.31, p〈.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에서는 교수의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대학-학생 관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γ=.32, t=3.63, p〈.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이 높을수록 대학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84, t=14.04, p〈.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신입생 및 재학생을 단순히 교육 소비자 혹은 교육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PR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공중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수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교수 역할은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모두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개념적 차원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7, 11]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문제점[2]을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8).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을 6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대학태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고, 이 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의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학생 관계성은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대학-학생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예를 들어,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교수 신뢰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선행연구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독립변인[3, 8]이나 종속변인[2]의 역할만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학생 관계성의 역할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을 위해서 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학생 관계성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들이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다. 조사시점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교수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적었다. 조사대상에 1학년 학생을 제외하기는 하였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선행변인은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만으로 대상으로 하였고, 결과변인 역시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대학태도를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제안한다면, 이 연구와는 차별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교수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대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정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들 변인 사이의 직접효과를 검정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19). *Basic Education Statistics for 2019*. Seoul.

[2] N. I. Park, J. Y. Jeong & B. S. Jin. (2017). University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 and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1(6),* 131-151. DOI: 10.15814/jpr.2017.21.6.131

[3] S. W. Yoo & H. Y. Park. (2018). University public rel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2(5),* 329-363. DOI: /doi.org/10.20879/kjjcs.2018.62.5.010

[4] S. D. Bruning & J. A. Ledingham. (1999).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publics: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and evaluations of satisfac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6(1),* 157-190.

[5] E. J. Ki & L. C. Hon. (2007). Testing the linkages among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9(1),* 1-24.

[6] M. Sung & S. U. Yang. (2009). Student-university relationships and reputation: A study of the links between key factors fostering students' supportive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their university. *Higher Education, 57(6),* 787-811.

[7] S. D. Bruning & M. Ralston. (2001). Using a relational approach to retaining students and building mutually beneficial student-university relationship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66(4),* 337-345.

[8] H. M. Lee. (2015). Understanding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9(4),* 1-26. DOI: 10.15814/jpr.2015.19.4.1

[9] K. Y. Lim, S. W. Kim & Y. J. Kim.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metacognitive self-regulation, emotion regulation and achievement in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0),* 685-707.

[10] H. H. Jeong.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structional service, non-instructional service, and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on loyalty through perceived quality, cognitive and emotional satisfaction in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225-253. DOI: 10.24159/joec.2019.25.1.225

[11] Y. H. Choi & M. J. Sung. (2015). Students' experience of a university and its influence on student-university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6(1),* 103-136. DOI: 10.14377/KJA.2015.1.15.103

[12] Y. H. Choi. (2017). Student-university relationship influence on student behavior intention: Based on searching for students experience contribution to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8(1),* 203-234. DOI: 10.14377/KJA.2017.1.15.9

[13] J. Hair, W, Black, B. Babin, R. Anderson & R.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14] R. P. Bagozzi & Y. J. Yi.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15] C. Fornell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최 명 일(Myung-Il Choi) [정회원]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헬스커뮤니케이션, 공공캠페인, 메시지 전략, 미디어효과
· E-Mail : jhmi0410@empas.com